

Adolf Loos의 Raumplan 재고찰

- 주거공간구현의 패러다임으로서 -

Re-consideration of Adolf Loos's Raumplan

- As paradigm of residing space embodiment -

서동현*/ Seo, Dong-Hyun

이현희**/ Lee, Hyun-Hee

Abstract

Modern house degraded by object of possession by industry and capitalistic development, and it is losing genuine meaning as order system to secure perpetuity of dwelling. Paradigm of space embodiment need first of all laying stress on human's life to overcome such modern dwelling crisis. In modern age Europe, Adolf Loos tried to embody residing space of human center within modernistic developing of technology, urbanization etc.. For such reason, Raumplan is worth reviewing. By treatise that research about Raumplan is many already presentation of the results of ones study do. But most discussions were limited by opinion which is 'Three-dimensional space plan techniques' that give attention to in physical characteristics of Raumplan, and by opinion which is 'Adolf Loos' criticism about culture with outside society'. We reconsidered Raumplan in side of general paradigm of residing space embodiment that started from relevant resident's life in treatise that see as such reason. As a result, we knew that is near in residing space original target that Raumplan wishes to embody human's life to space, and this nowadays suitable candidate for marriage as excellent thanks for residing crisis conquest of done situation quote may.

키워드 : 라움플란, 아돌프 로스, 주거공간, 주거계획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실내공간을 계획한다는 것은 공간과 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인간을 관련짓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즉, 인간과 공간의 관계는 상호 조정의 주체이며,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¹⁾ 그러나 근대 이후의 주거공간에서는 인간의 삶을 수용하고 거주자를 위한 거주 장소를 확보하려고 했던 주거의 근본적인 의미가 축소되었고, 단지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형태에 치중하여 주택을 물질로 보는 견해가 형성되었다. 이것은 '거주(dwelling)의 위기'로 이어져, 현대 주택은 거주자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질서체계로서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이러한 현대의 거주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인간의 삶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공간구현의 패러

다임을 재정립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근대 유럽의 건축가 Adolf Loos가 자신의 주택 작품을 통해 인간의 생활을 공간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노력의 결실인 라움플란(Raumplan)은 재조명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라움플란에 대한 연구가 이미 많은 논문으로 연구 발표된 바 있으나, 대부분 라움플란을 '3차원적 공간계획기법'이나 '외부의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한정짓고 있어 라움플란의 본래 의미를 놓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해당 거주자의 생활로부터 출발했던 주거공간구현의 총체적 패러다임(paradigm)의 측면에서 라움플란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Loos와 라움플란에 대한 논의가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설계과정을 볼 수 있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

* 정희원,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실내건축학과 석사과정

** 정희원,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부교수

1)최경실, 건축학적 내부공간의 개념과 그 확장 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7호, 1996.4, 서론

해 커다란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²⁾

그러므로 Loos의 설계과정 및 설계방식을 확인함에 있어서 Loos가 남긴 많지 않은 자취들을 단속적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관점으로 통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Loos의 작품과 저술, 당시의 교류관계 등을 ‘공간구현에 있어서의 인본주의적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아울러 분석은 주로 주택작품의 실내공간을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도면과 사진을 통해 분석하였다.

2. Adolf Loos의 라움플란

2.1. 라움플란의 개념

라움플란은 영어로는 ‘Space Planning’으로 번역되는 공간계획이지만 Loos의 라움플란은 공간계획 이상의 개념원리로서 그의 사후에 비로소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라움플란은 Loos의 제자 H. Kulka가 스승의 작품을 소개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용어로서, 주택 내부의 여러 레벨에 산재하고 복잡하게 상호 관입하는 공간 볼륨들이 마치 미로처럼 굴절된 좁은 계단과 통로로 연결되는 구성방식으로, 라움플란은 내부공간을 조직화시키는 복합적인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성격이 다른 각 실들의 연결 및 조합의 방법을 나타낸 것으로, 주택의 주된 생활공간인 거실, 식당, 서재의 구성방법과 이들 공간간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³⁾

2.2. 기존의 라움플란 분석에 대한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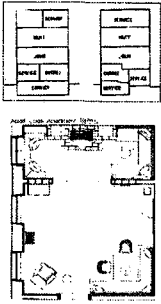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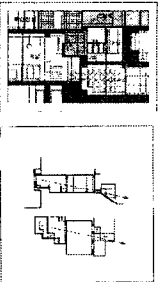
라움플란은 의미상으로는 공간계획이지만, Loos의 라움플란은 공간계획 이상의 개념원리로서 Loos의 건축작품 전반에 내재된 건축계획개념으로, 동시대 혹은 현대에서도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독창적이라고 평가된다. 그의 라움플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문에서 그 가치와 개념을 언급하고 있다. 발표된 기존 문헌에서 언급했던 라움플란의 특징을 크게 구분하면, Loos의 공간계획 기법으로 한정된 것과 Loos의 당시 사회에 대한 비판시각으로 해석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1) Adolf Loos의 공간계획기법으로 해석되는 경향

양동양은 Loos의 라움플란의 용어를 내용상으로는 3차원을 표현한 공간계획, 2차원적이고 수평적인 주거평면계획 및 공간을 둘러싼 재료들의 질감을 표시한 재료계획 등으로 요약했다.⁴⁾ 이것은 라움플란이 갖고 있는 가장 커다란 특징인 “건축

의 가장 효율적인 영역인 ‘건축의 3차원적 특성’이 극대화된 것”으로 보았던 정만영의 논의⁵⁾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T. Panayotis는 “라움플란이란 ‘공간에서의 평면해결(resolution of the plan in space)’이며, 주택 내부의 여러 레벨에 산재하고 복잡하게 상호 관입하는 공간 볼륨들이 마치 미로처럼 굴절된 좁은 계단과 통로로 연결되는 구성방식이다.”⁶⁾라는 정의로 라움플란의 3차원적 공간계획기법의 측면을 평가하고 있다. 이상의 특징을 언급하면 <표1>과 같다.

<표 1> 3차원적 공간계획기법으로서의 Raumplan

특징	compactness	복잡한 내부	층차를 활용한 공간구성
공간계획 수법의 어휘	거주영역의 극대화 - 공가의 경제성 기능의 긴밀성	편심의 circulation - 나선형 동선 복잡한 방식으로 휘감기는 계단 정적인 실, 동적인 순환동선	split-level skip-floor
작품사례			

(2) Adolf Loos의 비판시각으로 해석하는 경향

라움플란을 외부 사회의 한계상황을 내부로 끌어들이 해소시키기 위한 정화장치로 해석했던 강우영의 주장⁷⁾은 라움플란을 외부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형성된 것으로 보는 시각으로, 3차원적으로 이루어진 공간구성에 외부에 대한 비판적 측면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김광현, 우신구의 논의에서도 나타나는데, 라움플란이 건축을 응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려 했던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주택을 통해 비판한 것이라고 분석했다.⁸⁾ 문정희, 진경돈, 이강업의 논문에서는 3차원적 공간구성에 덧붙여 Loos가 채용한 고전/고대의

호, 1991.2, 122p

5)정만영, 아돌프 로스의 추상적 피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권8호, 1994, p.65

6)Tourmikiotis Panayotis, Adolf Loos,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4, 70p'을 김광현·우신구, 기술복제시대와 아돌프 로스의 주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권 10호, 1995.10, 90p에서 재인용

7)강우영, 아돌프 로스의 '라움플란'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1996.2, 초록

8)김광현·우신구, Op. cit., p.93

2)Beatriz Colominia, 박훈태·송영일 역, 프라이버시와 공공성, 문화과학사, 2000.1, p.17

3)이세영·신재익, 아돌프 로스 주택에서의 '라움플란'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권 2호, 1997.10, 355p

4)양동양, 아돌프 로스의 Villa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권 1

전통주의도 과거 장식의 무분별한 남용을 비판하려는 의도에서 사용된 것으로 주택 내/외부의 연속성을 제거함으로써 파괴적인 외부가 내부로 침투할 수 없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⁹⁾ 이 내용은 진경돈의 다른 논문에서도 나타나는데, 라움플란의 의미를 개인의 주체성이 상실된 비엔나라는 외부 현실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¹⁰⁾

Beatriz Colomina는 Loos가 외부와 내부를 '서로 환원될 수 는 없지만 상호의존적인 두 개의 체계들'로 판단했다고 말한다. 여기서 내면은 문화의 언어, 물의 경험이라는 언어를 말하며, 외면은 문명의 언어, 정보의 언어를 뜻하는 것으로,¹¹⁾ 이지영은 이것을 외부로부터 강요된 현실(외재성)과 건축의 자율적인 공간의 특성(내재성)이 서로를 담지 못하고 빗겨갔던 시대에서 비판적 의식을 견지하고 있던 건축가가 양자를 매개시키는 방법이었다고 보았다.¹²⁾

위의 논의들을 보면, 라움플란의 역할들은 내부와 외부의 관계를 크게 '비판-확보-보호'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이 다만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외부에 대해 적극적 비판인지, 소극적 보호인지 등에 따른 견해차이가 있을 뿐, 라움플란이 내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와 외부상황을 절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3) 기존분석의 한계

Loos의 사후에서 현재까지 라움플란에 대한 많은 논의와 해석이 있어왔지만, 다양한 관점으로 보이는 논의들도 궁극적으로는 라움플란의 물리적 특징들을 강조한 '3차원적 공간계획기법'이라는 견해와, 그 기법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에 대한 정의로서의 '외부사회와 문화에 대한 비판'이라는 견해로 크게 나뉘어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주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이 거주 본래 의미라는 면에서, 기존의 논의와 같이 라움플란의 역할이나 특징들을 나열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다. 거주 본래 의미가 '인간생활의 공간구현'에 있음을 볼 때, 라움플란의 진정한 의미는 작품에서 나타난 물리적 결과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 본래 의미를 밝히고자 했던 목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라움플란의 형성배경 고찰

Loos는 당시 시대적으로, 동시에 공간적으로도 근대화의 중

9) 문정희·진경돈·이강업, 아돌프 로스의 건축에 나타난 비판적 전통주의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권 6호, 1997.6, p.33

10) 진경돈, 아방가르드 미학이론에 근거한 Hannes Meyer와 Adolf Loos의 건축적 특성 및 현대적 의미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론, 1997.6, p.334

11) Beatriz Colomina, Op. cit., p.48

12) 이지영, 아돌프 로스의 주택에 나타난 라움플란 요소의 진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론, 1999.12, p.28

심에 있었으며, 그러한 급격한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붕괴된 패러다임을 재건하고자 사회적, 문화적으로 많은 비평과 논의를 계속하였고 그러한 노력을 건축 작품으로 이어갔다. 당시의 이러한 시대적/공간적 상황이 라움플란의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Loos가 처했던 주변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역사적/지리적 배경

16세기 서유럽에서 출현하여,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에서 확실한 이념적 내용을 갖추게 된다. 19세기에 접어들어서는 과학적 발견, 생산의 산업화, 도시의 팽창, 대중매체의 성장, 민족국가의 탄생, 자본주의적 세계시장의 성립 등과 같은 사회적 과정인 근대화가 가속도를 더해나갔고, 삶을 끊임없이 파괴, 변화, 생성의 혼란으로 내몰았다. 주거 외부 영역의 비약적인 팽창을 야기한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동들은 근대사회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으로서, 주거에도 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¹³⁾

이러한 사회변화로 인해 주거는 고유의 동일성(identity)을 상실하고 다만 유사성만을 지니는 자본주의 논리에 휘말리게 된다. 결국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링슈트라세(Ringstrasse) 지역의 개발을 중심으로 한 비엔나 재정비 과정에서 장식적으로 대표되는 바로크 문화와 길과 의례로 대변되는 전제주의 문화가 개입된 시대착오적인 건축양식을 나타내게 된다.¹⁴⁾ 당시, 1907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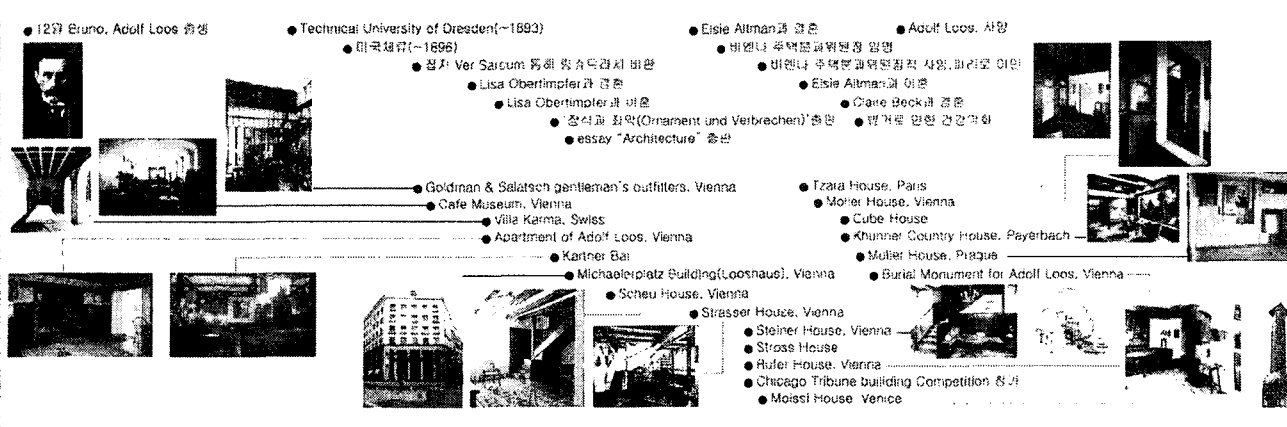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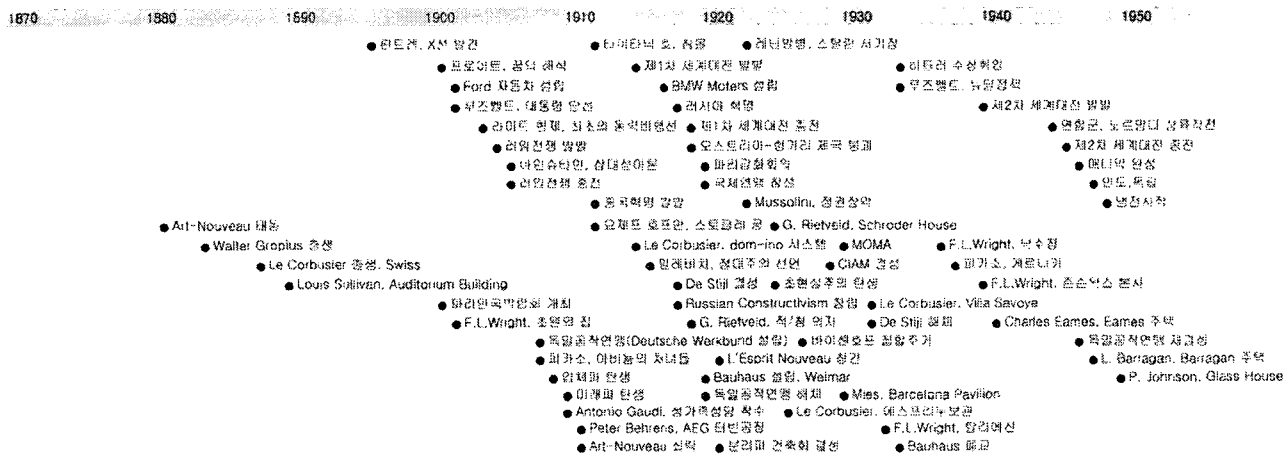


<그림 1> 링슈트라세(Ringstrasse)

는 H. Muthesius에 의해 독일공작연맹(Deutsche Werkbund)이 설립되었으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발표 등 역사상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던 혼돈의 시대였다(<그림2>참조). 게다가 1880년부터 태동했던 아르누보(Art-Nouveau)가 이미 왕성했던 시점이었고, 더구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복잡한 정치적, 민족적 상황과 프랜시스 요셉 황제의 전제정치에서 기인한 불안한 사회속성에 대한 반동으로서의 문화적 폭발과 세기말적 상황, 계급간의 갈등이 혼재된 당시의 비엔나는 극한 혼돈의 시대였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Loos는 1898년, 잡지 'Ver Sacrum'을 통해 링슈트라세 지역의 건축적 상황을 강력히 비난하였고 1908년에는 '장식과 죄악(Ornament und Verbrechen)'을 발표하여 장식의 배제를 주장하였다. Loos는 이 모든 일련

13) 우신구, 근대주거의 내부/외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론, 1999.2, p.55

14) 이지영, Op. cit., p.28



<그림 2> Adolf Loos의 행적과 작품을 중심으로 본 근대의 상황

의 링스트라세 건축을, 외적인 영역에서 장식을 부가한 예술적인 표현이라고 비판하고, 전반적인 문화적 맥락에서 양식을 종속적인 것으로 보았다. “포템킨 도시(Potemkin City)”에서 그는, 비엔나가 근대적인 중산층 문화를 가지지 않는 한, 결코 나름대로의 시대적인 건축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 우리와 (사회적 신분이) 동등한 사람들 역시 살고 있는 그런 집을 세내었다 하여 부끄러워하지 말자. 어떤 (비싼) 건물 재료를 살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끄러워 말자. 우리는 19세기의 사람이며, 과거 시대의 양식으로 지어진 집에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여 부끄러워 말자. 우리는 그때서야 얼마나 빨리 우리 자신, 동시대의 건물 양식을 얻을 수 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¹⁵⁾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의 혼란한 역사/지리적 상황들을 비판하는 과정이 Loos가 자신만의 원칙을 확립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이후 Loos가 형성하게 된 라움플란이 결국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주변의 사회문화적 현상들에 대한 대응이 필연적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3.2. 인물과 사상적 배경

Loos가 라움플란의 개념을 작품에 적용하게 되기까지 Loos는 다양한 사람들과 적지 않은 사상적 영향을 주고받았다. 그 중 Loos의 저술에서 빈번하게 언급되는 의복과 건축의 유추는 이미 19세기부터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것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파악되는 G. Semper의 피복론은 의복과의 유추를 통해 건축의 본질적인 국면을 정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매달린 카펫은 진정한 벽으로, 공간의 시각적인 경계로 남았다. 그들 뒤에 있는 고정적 구조가 필요한 것은 공간의 창조와는 무관한 다른 이유 때문이다. 그들은 안정성 때문에,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영구성 때문에 필요하다.”¹⁶⁾

여기서 고정적 구조는 이차적인 것이며, 공간을 구분하는 원초적인 수단인 카펫에 종속되고 그 뒤에 숨겨져야 하는 것이다. Loos는 이러한 G. Semper의 피복이론에서 공간구현의 본질을 찾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다음의 언명에서 잘 나타난다.

“건축가의 일반적인 과제는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15)Adolf Loos, "The Potemkin City(1898)"을 김주애, 아돌프 로스 건축의 '공간적 내포'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1997.8, 58p에서 재인용

16)Gottfried Semper, The Four Elements of Architecture(1851)'을 정만영, Op. cit., 60p에서 재인용

다. 카펫은 따뜻하고 살기 좋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가는 카펫을 바닥에 깔고 사면에 걸어서 벽을 만든다. 그러나 카펫만으로는 집을 지을 수 없다. 바닥에 깔린 카펫과 벽에 걸린 테피스트리가 정확한 장소에 고립되기 위해서는 구조 골조가 필요하다. 이 골조를 장안해내는 것이 건축가의 두 번째 과제이다. 이것이 건축이 진행된 정확하고 논리적인 경로이다. 인류는 이러한 순서에 따라 어떻게 지어야 할지를 배웠다. 처음에 피복이 있었다.”¹⁷⁾

이러한 관점은 공간을 구현하는 데 있어 인간의 생활을 그 중심에 두고자 하는 것으로, 제체선(Secession)과 독일공작연맹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비판하기는 하였으나 통속적 취향으로부터의 이탈을 열망하기만 한 것과는 분명히 달랐다. 이들에 반해 윤리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던 Loos는 Schonberg, Kokoschka, Wittgenstein, Kraus 등과 함께 당시 비엔나의 사회상에 대해 강력한 지적 결속을 맺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결국 라움플란의 형성에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만이 아니라 Loos의 주변인물과 사상들, 비판의 대상이 된 제체선이나 독일공작연맹 등도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 주거공간 구현의 패러다임

Loos는 1910년, 에세이를 통해 “주택은 예술작품이기보다는 생활에 가까우며 따라서 주택은 예술이 아니라 생활이다.”라고 주장했다.¹⁸⁾ 이것은 주택을 설계함에 있어 설계자의 의도나 양식에 근거한 형태보다 해당 거주자의 생활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함을 말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당시의 다른 건축가들이 근대화를 받아들임에 있어 형태와 양식에 근거하려 했던 것과는 크게 다른 관점이다. 이것은 근대사회의 인간소외문제를 거주공간구현의 인본주의적 패러다임을 통해 해결하려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건축은 내부에서 외부로 향해야 한다.”는 Loos의 말이 외부의 사회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기 이전에 주거공간의 중심이 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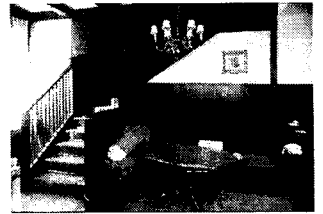
주거가 인간이 만든 인공물(artifact)의 하나이며, 물질적인 형태를 가지며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주자가 단순히 이용자의 수, 동선, 신체의 치수, 신체동작의 특성 등 가시적인 측면에서의



<그림 3> Adolf Loos' Apartment, 1909, 거실의 벽난로

17) Adolf Loos, The principle of Cadding(1898),66~69p를 정만영, Op. cit., 63p에서 재인용
18) Adolf Loos, "Architecture(1910)", in The Architecture of Adolf Loos. London : An Arts Council Exhibition, 1985, 107~108p를 문경희·진경돈·이강업, Op. cit., p.30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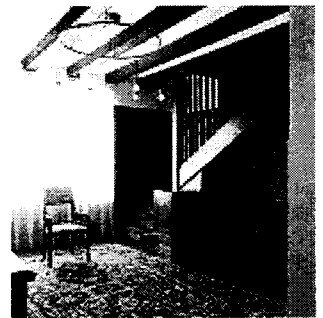
인간성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내용은 Loos가 “건물 거주자들이 성공적으로 그들의 시대의 문화적 삶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 속에서 명확하게 건축의 3차원적 성격을 표현하라.”고 한 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적 삶’은 Loos의 작품에서 잘 나타난다. Loos를 대표하는 “장식은 죄악이다”라는 어구가 주택의 외부에서는 ‘침묵하는 입면’을 통해 잘 나타나지만, 실내공간에서는 마치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Loos는 ‘소비라는 건강한 필터’를 통해 거주자가 실내공간을 직접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형태에 의해 장식인지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Loos에게 장식은 그것이 거주자의 생활을 중심으로 한 것인지 반대로 건축가의 미학적 기준인지에 따라 그것이 배제돼야 할 것인지를 구분했다고 보여 진다. 그



<그림 4> Steiner House, 1922, 홀과 계단



<그림 5> Khuner House, 1929, 거실



<그림 6> Ssheu House, 1913, 홀과 계단

그러므로 결국 Loos가 주장하는 ‘장식의 배제’는 ‘거주자 중심의 공간구현’이라는 커다란 범주에 속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외관이 추상적이고 백색의 입면을 지닌 것은 외관이 거주자의 영역이기보다는 외부사회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이며 결국, 백색의 외관과 사진에서 보듯 장식된 내부는 모순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패러다임에 의해 다르게 적용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굳이 세기말의 상황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Loos가 활동했던 당시의 비엔나는 오늘날의 현실과 너무나 많이 닮아있다. 현대의 주택은 거주자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질서체계로서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으며, 소유의 대상으로 그 의미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의 본래 의미를 재확인하는 일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근대 유럽의 건축가 Adolf Loos

가 자신의 주택작품을 통해 인간의 생활을 공간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노력의 결실인 라움플란(Raumplan)을 재조명할 가치가 있다 보고, 기존의 연구들을 살피는 한 편, Loos의 저술과 작품을 통해 라움플란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계획기법에 한정되지 않은, 인간생활의 공간구현이라는 주거 본래의 목적을 추구한 패러다임이었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그 결과, 내부와 외부가 모순된 이중적 잣대를 갖고 있다는 기존의 분석이 형태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결국 Loos의 작품에서 나타난 추상적 입면과 복잡한 내부는 거주자의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목적에 있어서 동일한 원칙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라움플란이 공간계획기법의 3차원적 어휘로서 이해되기보다는 주거 공간 구현에 있어서 인본주의적 패러다임으로서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함을 밝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 최경실, 건축학적 내부공간의 개념과 그 확장 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7호, 1996
2. 문정희·진경돈·이강업, 아돌프 로스의 건축에 나타난 비판적 전통주의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권6호, 1997
3. 김주애, 아돌프 로스 건축의 '공간적 내포'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7
4. 정용욱, 몰러 주택과 비트겐슈타인 주택의 비교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7
5. 우신구, 근대 주거의 내부/외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9
6. 강우영, 아돌프 로스의 'raumplan'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6
7. 김광현·우신구, 기술복제시대와 아돌프 로스의 주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권10호, 1995
8. 이지영, 아돌프 로스의 주택에 나타난 라움플란 요소의 진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99
9. 이은경, 현대건축의 실천체계로서 아돌프 로스의 라움플란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2002
10. 양동양, 아돌프 로스의 Villa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권 1호, 1991
11. 이세영·신재영, 아돌프 로스 주택에서의 'raumplan'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17권2호, 1997
12. 정만영, 아돌프 로스의 추상적 피복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권8호, 1994
13. 진경돈, 아방가르드 미학이론에 근거한 Hannes Meyer와 Adolf Loos의 건축적 특성 및 현대적 의미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97
14. Beatriz Colomina, 프라이버시와 공공성, 박훈태, 송영일 역, 문화과학사, 2000